



# Art

아트인컬처  
August 2015

Special /  
거장 이쾌대 1913~1965  
해방의 대서사

Essay /  
광복 70년의 한국미술  
평론가 7인이 말한다

Artist /  
함경아, 인샤오핑, 시징맨





# 서쪽으로의 여행

시징맨 <시징을 사랑해요 -  
시징 대통령의 일상생활>  
혼합재료,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6분 2009

오른쪽 페이지  
왼쪽 · 김홍석 <보트> 혼합재료  
2000~2002  
오른쪽 · 오자와 츠요시 <채소  
무기: 아시아 버전 '양고기  
냄비/베이징'> C-프린트 2002  
아래 · 첸샤오시웅 <잉크  
미디어> 애니메이션비디오,  
사운드, 3분 45초, ed.8  
2011~2013

5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시징맨의 전시 <시징의 세계>가 개최됐다. 시징맨은 2006년 한국의 김홍석, 중국의 첸샤오시웅, 일본의 츠요시 오자와가 결성한 그룹이다. 이후 시징맨은 2008년징트리엔날레, 2009후쿠오카아시아아트트리엔날레, 2010미디어시티서울 등 대규모 국제전에서 초대받을 동시, 개별적 활동도 지속하면서 '따로 또 같이'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1960년대 출생한 한중일 작가로서 시징맨의 멤버들은 1990년대부터 급속도로 발전해 온 아시아 아트씬을 몸소 체험하며 느꼈던 전 지구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직설적인 메시지보다는 '시징(西京)', 즉 서쪽의 수도라는 가상의 영토를 설정한 가운데 농담 섞인 말투로 동시대의 아시아성을 우화적으로 표현한다. 필자 역시 시징맨의 탄생 배경에 주목하여, 1970년대 재팬파운데이션을 출범한 일본을 시작으로 2000년대 아시아 예술 교류와 국제 네트워킹의 족적을 살핀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아시아 동시대 미술의 현재를 연구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아시아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파편적으로 선보였던 작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회다. '시징을 아시나요?' '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시징이군요' '시징을 사랑해요'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시 장소에 따라 새로 섭외한 사람들이 만드는 공연 작품 <서쪽으로 떠나는 여행-시징호텔>이 국립현대미술관 버전으로 제작됐다. / 김 해 주



1) "Asia through bodies of work by the new generation of artists from China, Japan and Korea – none of whom will have grown up with a feeling of inferiority towards the Western world that would have affected the people of these countries in the past." 전시 서문 중, 웹사이트 참조.

2) 타이페이비엔날레(1992), 아시아퍼시픽 트리엔날레(1993), 광주비엔날레(1995), 상하이비엔날레(1996), 요코하마 트리엔날레(2001) 등

## 시징으로의 출발

시징맨은 김홍석(한국), 첸샤오시용(중국), 츠요시 오자와(일본) 세 작가가 2006년 시작한 협업 프로젝트의 이름이자 시징이라는 가상의 국가에 소속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모두 1960년대생인 이들은 아시아 미술의 봄이 일기 시작했던 90년대 이후 자국뿐 아니라 국제 미술계에 등장했다. 츠요시 오자와와 첸샤오시용은 시징맨 이전부터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2006년 북경에서 열린 <Summer Holiday>전은 20일의 기간을 두고 매일 일기를 쓰듯이 하나의 작업을 제작하여 전시한 것으로 작가들뿐 아니라 각자의 가족들이 매일 작품 제작에 동참했고, 2007년 1월 모리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All About Laughter; Humor in Contemporary Art>에서 보여 준 <광동도교3>는 방송국 형태의 세트를 만들어 CCTV를 흉내 낸 CTTV라는 이름을 짓고 두 사람이 뉴스를 전달하는 형태의 영상 작업이다. 당시 중국에서 일어나던 반일(反日) 시위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작가는 서로의 작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지속했다. 피상적인 정치의 층위와는 다르게 언어와 지리적 거리에서 생기는 틈에서 오히려 유쾌한 에너지를 발견하면서 소통하는 이들의 방식은 시징맨 이후에도 지속된다. 마침 모리미술관의 이 전시에는 김홍석 작가 역시 참여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한중일 세 나라를 가로지르는 시징맨의 협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시징은 아시아의 도시 이름 중에 북경(베이징), 남경(난징), 동경(도쿄)는 있지만 서경(西京)만 없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한때는 있었을 법한, 하지만 지금은 없는 이름의 지명이다. 발음을 시징으로 통일한 것은 '西京'이라는 단어의 한중일 발음 중 중국어가 가장 쉽기 때문이었고, 나침반에서 네 곳의 방위 표시를 빼 버린 도상을 사용해 국기를 만들었다. 작가들 간의 한시적인 협업이나 콜렉티브 활동은 종종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국적이 모두 다른 3명의 작가가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특히나 한중일 세 나라 작가들이 모인 경우라면 시징맨이 유일한 것 같다. 지리적인 거리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들이 한국과 중국, 일본 출신이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정치적, 경제적 경쟁 관계이자 근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해 서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이 세 나라를 뒤로 하고, 시징맨들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탈한다.

시징맨이 결성된 것과 비슷한 시기인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한중일 세





왼쪽 · 알프레도 주안 & 마리아 이사벨 아퀼리잔, 후타나 요시 <거주 프로젝트: 선택> 혼합재료 2002 언더 콘스트럭션 전시 광경 가운데 · <모던 아시안 아트> 1979

오른쪽 · <페스티벌: 동시대 아시아 미술전> 1980\_1979년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설립을 기념하여 열린 <모던 아시안 아트>전에 이어 이듬해 <페스티벌: 동시대 아시아 미술전>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을 추가시켜 총 13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했다.

오른쪽 페이지 <판타지아>전 스페이스이마 전경 2001



나라의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를 본 적이 있다. 토리노의 폰다지오네 산드레토 레 레바우덴고(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에서 열린 <Alllooksame? Art from China, Japan and Korea>라는 전시였다. 프란체스코 보나미가 기획한 이 전시는 세 나라의 작가 40여 명을 초대했다. ‘올 룩 세임?’이라는 질문 형태의 제목은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외모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동명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왔다는 단서와 문장 끝 물음표라는 구실이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선입견과 인종주의를 강조하는 전시 제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어떻게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을까? 세 나라의 언어나 문화가 당연히 다를 뿐 아니라 초대된 작가들의 개별 작업들이 갖고 있는 관심들도 모두 다르다. 이 전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개별 작가들의 작품을 국가별로 구별 짓는 기능을 했을까? “서구에 대한 열등감 없는 세대의 아시아 작가들”이라는 관점으로 이들을 통합하기도, 각 국가별로 이들을 구분하기도 석연치 않다. 도발적인 제목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동아시아의 여러 미술가들을 소개하는 데 그칠 뿐, 제목에 대해 해명할 만한 충분한 맥락을 제공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빈 라텐을 흉내 낸 아이다 마코토의 비디오 작업이나 최호철의 그림 등 인상적인 작업들과는 별개로 기획의 프레임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1989년 파리에서 열린 <지구의 마법사들> 전시로부터 촉발된 서구의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 특히 1990년대 들어서 강해진 중국미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엑조티즘의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서구의 기획자가 아시아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시아 출신 큐레이터라고 항상 자국의 사회나 예술의 맥락을 해외에 세심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를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외교적, 홍보형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유혹이지만, 국적이 작가 선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틀을 벗어난 동시대 미술의 작업들을 대면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기도 하다. 시징맨의 올림픽은 어쩌면 경쟁으로 과열된 국제 행사인 올림픽에 대한 패러디일 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구도 안에서 교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술 올림픽’에 대한 웃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사회경제적 주도권이 서구의 손에 있었던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만났던 다른 아시아 나라의 작품들도 서구의 중계를 통해 되돌아오곤 했지만, 1990년대 아시아 미술의 붐은 단지 서구의 시선을 통해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발판 삼아 아시아 내부에서 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 배경에는 1990년대 앓다투어



3) <언더 컨스트럭션>의 참여 큐레이터는 그리티야 가위왕(Gridthiya Gaweewong, 태국), 란지스 호스코테(Ranjit Hoskote, 인도), 파트릭 플로레스(Partrick Flores, 필리핀), 김선정(한국), 아스무조 조노 이리안토(Asmodjo Jono Irianto, 인도네시아), 펠리(Pi Li, 중국), 유키 카미야(Kamiya Yukie, 일본) 그리고 야마모토 아츠오(Yamamoto Atsuo, 일본)의 8명이었다.

4) 각각의 전시는 베이징, 뭄바이, 서울, 방콕, 반둥, 마닐라, 일본 효고현의 아시아에서 열렸고, 일본에서 큐레이터 마미 카타오카의 주도로 하나의 전시로 만들어졌다.

5) 스페이스이마(Space imA)는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신문을 인쇄했던 여의도 동아일보 사옥의 1층 운전실을 개조한 공간으로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잠깐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환타지아>(2001. 11. 7~12. 9) 전에는 김범, 김홍석, 김소라, 이미경, 이주요, 함진, 일본의 사키 사툼, 시노다 타로, 오자와 츠요시, 중국의 지양 지, 칸 슈안, 양 쟈중, 태국의 담롱폴 마리아 등 총 4개국 13명이 참여했다.

생겨난 아시아 지역 비엔날레들이 일단 한몫을 했다.<sup>2)</sup> 한편 아시아 지역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제도적 행보를 보인 것은 일본이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의 미술관들이 아시아 미술에 등장한 모더니즘적, 동시대적 성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특히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모태가 된 후쿠오카미술관이 1979년 설립되었고 그 개관 기념전으로 <모던 아시안 아트—인도, 중국, 일본>(1979)을, 개관 1주년 기념전으로 <페스티벌: 동시대 아시아 미술전>(1980)을 열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도착한 모더니즘 미술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했다.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된 외무성 산하 기관인 재팬파운데이션(일본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사업도 아시아에 집중해 왔다. 재팬파운데이션은 동남아 지역과의 정치경제적 교류 이전에 적극적인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0년 ASEAN 10개국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아세안컬처센터를 내부에 설립했고, 1995년 아시아센터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아시아센터는 2004년에 문을 닫았으나 2013년 12월 도쿄에서 개최한 아세안-일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4년 다시 문을 열어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문화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 아시아의 전시와 교류

2000년대 초 아시아 미술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로젝트인 <언더 컨스트럭션>을 주도하고 지원한 것도 재팬파운데이션의 아시아센터였다. 아시아 지역 7개국 8명의 큐레이터가 3년에 걸쳐 참여한 리서치형 기획 프로그램이었던 <언더 컨스트럭션>에 참여한 큐레이터들은 현재에도 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sup>3)</sup> 이를 계기로 열린 전시가 <환타지아>라는 워크 인 프로그레스 개념의 전시였다. 중국의 펠리, 일본의 유키 카미야, 한국의 김선정 큐레이터가 공동 기획한 것으로 '아시아는 무엇인가?'라는 공통의 질문에서 출발한 후 '아시아의 일상성'이라는 주제를 도출했고 리서치 트립을 통해 작가들을 만나 전시를 구상했다. 2001년 11월 서울의 스페이스이마에서 열린 후 2002년 3월에 베이징에서 열렸고 그해 12월에 아시아 지역에서 열린 다른 7개의 전시<sup>4)</sup>와 함께 도쿄 오페라시티갤러리의 <Under Construction: New Dimensions of Asian Art>에 합류했다. 한국에서 전시가 열렸던 스페이스이마는 동아일보 여의도 사옥 1층의 운전실이었던 곳으로 오래된 공장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한 강렬한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츠요시 오자와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각종 채소로 무기 모양을 만들어 모델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연출한 작품을 설치했고, 김홍석 작가도 참여했다.<sup>5)</sup> 당시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를 배경으로 시징맨의 멤버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팬파운데이션은 지난해 아시아센터를 다시 열었다. 최근 일본의 큐레이터나 프로듀서들을 만나면 기관의 후원과 연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아시아센터는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총 3,000명의 일본어 보조교사를 동남아시아 지역에 파견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전시와 공연을 개최하거나 여러 예술 관련 리서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동남아시아 예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동아시아 인접국들과 긴장 관계에 있는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집중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 패권을 주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시징맨 <시징의 세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 전경\_전시의 마지막  
섹션은 김홍석, 천샤오시웅,  
오자와 초요시의 개별  
작품을 재구성한 에필로그로  
이루어진다. 3명의 작가는  
자신들의 작업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시징맨의  
외전(外傳)을 재구성한다.  
시징맨으로서 의기투합하여  
세상에 던졌던 획극적 농담과  
개별 작가로서 각자가 세상에  
던졌던 질문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작가들의 고민을 동시에  
살펴 볼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시징맨 <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시징 올림픽>  
혼합재료, 싱글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35분 2008

불편한 시선도 있다, 비단 일본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예술 교류의  
틀이 작업 자체에 대한 성찰이나 아시아 내부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고민보다는 문화적 주도권  
확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시아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유럽-미국 패러다임의 대척점으로 추켜세워진, 개념조차 불명확한  
'아시아적인 것' 또는 아시아 중심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망명자들의 나라, 환대의 땅

시징은 이러한 파도를 타게 된 세 명의 개별 작가들이 그들이 속한 제도적 현실에 대답하거나  
조소를 던지는 유쾌한 방법이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새로운 나라 시징의 건설은 한중일의  
구도에서 빠져들기 쉬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선입전에서 멀리 떠나갈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다. '시징맨의 역사'라는 영상은 아시아의 지도 위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온 시징의 전설  
같은 이동의 역사를 어린이의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한가득 풀어놓은 밥을  
주걱으로 이리저리 휘저으며 도시의 달라지는 형태들을 만들어 보여 준다.

시징맨의 작업들은 완성의 강박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있다. 매끈한 영상들보다 홈비디오  
형식으로 시징이라는 일상을 포착하는 가벼운 이야기들의 연속이다. 시징의 영상이 그려 내는  
에피소드들은 구축된 시나리오를 재현하거나 인물의 행동을 재단, 조율하려는 시도가 없고  
시종일관 아이들 놀이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구조적인 언어로 서로를 설득하거나  
조율하려고 애쓰지 않는 험거움도 시징맨 작업의 특징적인 방식이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언어의 틈이나 의사소통의 한계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표현들이나 사고의 전환을 즐기고 이를  
시징의 언어로 활용한다. 시징의 교육-언어편에는 바닥에 백묵으로 그림을 그려 소통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들의 철학 교육은 매트 위에서 잠자기이다. 음악시간에는 마치 스타워즈  
테마음악처럼 들리는 가사 없는 시징의 국가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며 제멋대로 배운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시징의 세계>는 이제 근 10년에 가까워지는 시징맨의  
전반적인 작업들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국가를 표방하는 시징이 그 내부의 교육,  
법, 제도, 이념 등 기존의 국가가 사용하는 장치들을 어떻게 놀이의 대상으로 전유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전시장 입구는 <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시징 출입국 사무소>(2012)로 꾸며져  
있다. 밝은 색의 벽과 식물들로 꾸며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권이 아닌 춤과 노래, 또는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전시장의 중심에 있는 공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시기에 열린 시징 올림픽의 영상과 최근작인 시징 동계올림픽(2014)의 영상들과 관련 소품들의

설치로 채워졌다. 자전거 경주는 자전거를 타는 대신  
미는 것으로, 수영은 세숫대야에 머리를 박고 오래 참는  
것으로, 농구는 신발에 담배를 비벼 끼고 벽에 높이  
걸린 쓰레기통에 공초를 던지는 것으로, 탁구는 세 개의  
작은 테이블을 세모 대형으로 놓고 함께 치는 것으로  
변종되었다. 혼한 올림픽의 경쟁다운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누구도 경쟁 따위는 할 마음이 없는 그런  
경기를 재현함으로써 시징은 국가주의적으로 변해 버린  
국제 행사를 매우 사적인 즐거움들로 대체한다. 이 모든  
장면들은 부조리한 연극의 장면들처럼 장난이라기엔  
진지하고, 진지하다고 부르기에 가볍다. 또한 그들은  
시징맨들의 역할을 다른 픽션 메이커들에게 넘기고,  
서유기 또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가져 온 <서쪽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공연을 여러 도시로 전시를







옮겨다니면서 만나는 각기 다른 예술가들에게 맡겨 인형극의 형태로 공연하기도 한다.

시징맨의 일원인 첸샤오시옹은 과거에 '(in)famous elephant'라는 콜렉티브로도 활동한 바 있고 중국 작가 리우딩(Liu Ding)과 함께 자국의 환경 속에서 작가의 역할과 미술 시스템 내부의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A Project without Space'라는 팀을 만들어 여섯 차례 함께 작업했다. 개인 작업으로는 잉크 드로잉을 통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사회적 이슈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다. 김홍석 작가도 차용과 전유의 방식으로 제도와 선입견에 대해 질문을 던져 왔고, 츠요시 오자와의 경우 도쿄의 비싼 갤러리 임대 시스템을 비꼬기 위해 우유 상자 속에 나스비('가지'라는 뜻)라는 이름의 화이트큐브를 꾸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갤러리'를 운영했던 작업으로 알려져 있고, 미술사의 주요 작업을 간장으로 그리는 <간장 예술> 리시즈를 이번 전시에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세 작가는 공통적으로 사회와 제도에 대한 비평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데, 각각이 가진 표현 방식과 거리두기의 지점들이 조율을 이루면서 시징맨이라는 그림을 함께 그려 가고 있다.

최근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이 화제가 되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이민을 떠나는 한 젊은 여성이 화자로 등장한다. 그 내용을 떠나 제목만은 시기적절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들 지금의 현실에서 한번쯤 탈출을 꿈꾸지 않을까? 그러나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떠나는 것이 완벽한 탈출이기보다 다른 방식의 압박을 예고하게 될 것이 뻔한 만큼 망명지가 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 시징은 국가와 제도, 정책이나 선입견에 휘방받지 않고 각자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이 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작가들의 유토피아이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지나치게 다그쳐 묻거나 '나'를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한시적이지만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에 대한 바람이다. 대책 없는 평화주의자처럼 보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은 근본적으로는 옳다. "당신들이 자신을 인도인으로, 혹은 무슬림으로, 혹은 기독교인으로, 혹은 유럽인으로, 또는 다른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 때, 당신은 폭력적이 된다. 왜 그것이 폭력적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념으로, 국적으로, 전통으로 자신을 분리시킬 때, 그것은 폭력을 키운다." 시징은 어차피 서로 같지 않은 한국, 일본, 중국을 무리하게 묶거나 개인의 정체성 안에 국가의 이름을 무리하게 주입하기보다는 현해탄의 해류를 따라 둥둥 떠다니는 어떤 또 다른 나라의 국적자가 되어 보는 달콤한 상상을 가능케 한다.

김홍석 / 196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조소과 및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졸업.  
현재 상명대 공연영상미술학과 부교수.  
삼성미술관 플라토(2013) 등에서 개인전 개최.  
요코하마트리엔날레(2014) 등 그룹전 참여  
첸샤오시옹 / 1962년 산터우 출생.  
광저우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록펠러재단 벨라지오크리에이티브아트 펠로우십(2013).  
광주비엔날레(2012) 등 그룹전 참여  
츠요시 오자와 / 1965년 도쿄 출생.  
도쿄예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타카시마야미술상(2014) 수상. 도쿄 모리미술관(2004) 등에서 개인전 개최.  
이스탄불비엔날레(2002) 등 그룹전 참여